

색깔을 잃어버린 무지개

세연 민



어느 날 아침, 하늘에 뜬 무지개 친구 무지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예쁜 일곱 가지 색깔이 모두 하얗게 변해버렸지 뭐예요. 무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하늘 아래 숲속으로 살금살금 내려왔어요.



숲속에 도착한 무지를 가장 먼저 반겨준 건 귀여운 아기 다람쥐였어요. 다람쥐는 빨갛고 반짝이는 사과를 건네주며 무지의 첫 번째 색깔인 빨간색을 찾아주었어요. 사과를 꼭 쥔 무지의 뺨이 발갛게 물들었답니다.



시원한 강가로 걸어간 무지에게 노랑 나비 한 마리가 팔랑팔랑 날아왔어요. 나비는 향긋한 노란 민들레꽃 위로 사뿐히 앉아 무지에게 노란색 선물을 건넸어요. 따스한 노란빛이 무지의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풀밭에서 뒹굴던 아기 토끼가 노란빛을 본 무지에게 다가왔어요. 토끼는 싱그러운 초록색 풀잎을 엮어 무지의 머리 위에 예쁜 화관을 씌워주었어요. 숲의 초록 기운이 무지의 몸을 환하게 밝혔어요.



반짝이는 호숫가에 다다르자 파란 물고기들이 퐁퐁 물방울을 터뜨렸어요. 물방울 속에서 맑고 시원한 파란색이 톡 튀어나와 무지의 두 팔을 감쌌어요. 보기만 해도 가슴이 탁 트이는 시원한 파란색이었지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저녁 노을이 물들 무렵, 귀여운 아기 곰이 주황빛이 가득한 당근을 내밀었어요. 주황빛은 몽글몽글 따뜻한 온기로 무지의 가슴을 포근하게 안아주었어요. 무지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답니다.



하늘이 보랏빛 황혼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숲속 부엉이가 나타나 깊고 신비로운 남색과 보라색 밤하늘의 조각을 무지에게 살포시 건넸어요. 이제 무지에게는 마지막 색깔들만 남게 되었어요.



숲속의 모든 친구들이 모여 무지가 가져온 색깔들을 함께 모아보았어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색이 모두 모이자 마법처럼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은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그리며 껑충껑충 춤을 추었어요.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과 도움으로 무지는 마침내 일곱 빛깔 알록달록한 예쁜 옷을 되찾았어요. 무지는 힘차게 하늘 위로 둥글게 떠올라 숲속 친구들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지었답니다.



하늘 위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무지를 보며 숲속 친구들은 손을 흔들며 기뻐했어요. 무지는 언제나 친구들의 마음속에 알록달록한 사랑을 가득 남겨주며 행복하게 웃었어요.